

고창군,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만든다

경로당 60곳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 운영 등 올해 지역자원 활용 5개 분야 85개 세부사업 추진

고창군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농촌형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여성친화도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5개 분야, 28개 정책과제, 8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농촌형 여성친화도시' 모델 만들기로 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9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전북에서는 익산, 김제, 남원에 이은 4번째이고, 군 단위로는 최초다.

고창군은 이달부터 6개월간 농어촌 혼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형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용역을 진행했다.

결과에 따라 도시개발과 공공시설 건축 등에 활용해 여성·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도시기반을 구축한다.

또 지역 경로당 60곳을 '여성·아동 안심지킴이집'으로 운영한다. 귀농귀촌 세대와 다양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농촌지역의 대표시설인 경로당을 활용해 고창군 전체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군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해 '군민참여단'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군민참여단은 지난해 33명에서 올해 10명이 늘어 43명이 활동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아동·노인을 아우르는 누구나 편안



고창군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여성친화도시를 만든다. 사진은 지난해 양성평등 기념행사.

한 공간 구성, 누구나 평등한 고창, 누구나 일상이 행복한 고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임민영 정읍 부시장이 지난 10일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읍시 "코로나19 차단 역량 집중"

정읍시는 지난 10일 임민영 부시장 주재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방역 추진, 마스크 보급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임 부시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고는 있으나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니다. 뚜렷한 감소를 위해 모든 역량 집중할 때"라며 "중앙 및 전북도 재해대책 본부와 연계해 지역 역량을 총동원, 지역

사회 감염 예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부시장은 이어 "시민들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대규모 행사·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창군, 대학 진학생에 1인당 200만원씩 준다

학부모 경제부담 덜기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순창군이 대학 신입생 자녀를 둔 군민에게 축하금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을 자녀로 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이기 위해 대학진학축하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주거비와 생활비 성격의 축하금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애환심 고취를 위해 지난해 순창군이 마련한 것으로, 학생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순창지역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위해 인근에 있는 광주와 전주를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어 학비 외에 생활비 등이 많이 들어 학부모들의 경제부담이 컸다.

이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제도로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긍정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신입생 181명에게 200만원씩 총 3억6200만원을 지급하며



순창군이 대학에 진학한 자녀를 둔 군민들에게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옥천인재육성 수료식 모습.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시행을 장담할 수 없었지만, 기나긴 설득 끝에 지난해부터 대학진학 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

대학 진학 축하금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대상자는 올해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신청기간인 현재 학생과 부모 중 1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 내 신청을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차 신청도 받을 계획이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버리는 물 농업용수 활용 등 고창군, 하수처리수 재이용

고창군이 가뭄상습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창군은 지난해 1월부터 총 사업비 23억원을 들여 고수면과 아산면 일원에 8.4km의 관로를 매설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 1600t의 농업용수를 공급한다.

현재 공정율은 80% 정도로 이달 말 사업을 완료해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상습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된다. 그동안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농민들에게 시름을 덜어주고 농업소득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부족 국가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국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창군민들의 영농활동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남원시, 귀농 창업·주택구입 42억 지원

남원시는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을 위해 상반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용자금 42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저금리로 장기융자해주는 지원사업이다.

창업자금의 경우 농기구입, 하우스 신축, 농기계 구입에 가구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주택자금은 최대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남원시는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귀

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18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밖에 선정되지 못한 5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귀농에 희망을 품고 남원으로 정착한 귀농인들에게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이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한다"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상반기 출범

임원 공모...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총괄

군산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총괄할 '군산시민발전주식회

사'의 임원을 오는 2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대표이사

1명과 이사 2명, 감사 2명 등 총 5명이다.

군산시는 다음 달까지 임원을 선정할 뒤 설립인가 절차를 밟아 늦어도 상반기 내에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과 시의회 심의 및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가 자본금 100억원 전액을 출자해 만드는 기관으로, 새만금 내 육상 및 수상 태양광 사업과 해상풍력 사업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차를 진행했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